

[사회]

서울대 정시 외국어능력 반영·주요대 논술비중 강화

2008 대입 '불안한 高2 교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대폭 바꾸면서 광주·전남지역 고교 2학년 교실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한층 중요해진 논술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도 상위권 대학의 경우 입시의 초점이 수능에서 논술로 급속도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규 교과와 별도로 독서와 논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데다 교사마저 부족한 난감해 하고 있다.

토익·제2외국어 등 포함

◇서울대, 2008년 정시부터 외국어능력 반영 = 서울대는 12일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출결사항, 봉사활동 등과 함께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재된 지원자의 어학능력도 입시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학 능력의 경우 공인된 영어 시험인 토익·

토플·토플스 등을 포함해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제2외국어 능력 시험 중 적어도 1개 이상에서 서울대가 제시하는 일정 점수 이상이 충족되면 모두 만점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기준을 충족하는 성적표가 없더라도 고교 교사가 학생부에 '어학능력 우수' 등으로 평가하는 등 이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적표 제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방침이다.

수능 영향력 크게 떨어져

◇주요 대학 2008년 정시부터 논술비중 강화 = 서울대는 지난 8일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는 50%(교과 40%, 비교과 10%) 반영하고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약화되고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도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통합논술 준비 초비상

◇일선 학교 진학지도 비상 = 상위권 대학의 논술 비중 강화로 광주·전남지역 일선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지방대 등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과 수능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능시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통합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할 처지가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논술의 경우 대부분 고교가 초보적 준비단계인데다 수업안 마련·교과과정 운영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학담당 교사들은 광주의 경우 통합논술을 가르

칠만한 학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서석고는 각 교과 대표 교사를 중심으로 '통합논술준비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이 발표한 예시문항을 분석하며 수업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수업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학교 김오자 진학실장은 "서울대가 제시한 20개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훨씬 벗어난 것으로 특별한 준비가 없으면 접근조차 어려운 문제였다"며 "교육부에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까지 금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어학능력의 경우 이미 상위권 학생 모두가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실시 중인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신입생에게 요구하는 520점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최저기준으로 적용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대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낮 한때 비
남해안을 중심으로 낮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9월 13일
(윤 7월 21일)
◇전국날씨

광주	흐림	16~24℃
대전	흐림	16~24℃
대구	흐리고 비 조금	18~22℃
부산	흐리고 비 조금	16~22℃
서울	흐림	16~26℃
인천	흐리고 비 조금	16~22℃
전주	흐림	15~23℃
목포	흐리고 비 조금	16~22℃
제주	흐림	16~25℃
울릉도	흐림	15~25℃
독도	흐림	15~25℃
경남	구름많음	16~26℃
충남	구름많음	15~25℃
충북	구름많음	16~26℃
강원	구름많음	16~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남해북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5:43 썰물 < 10:48
목포 밀물 < 18:34 썰물 < 23:30
여수 밀물 < 00:01 썰물 < 06:13
 12:54 썰물 < 18:49

▲해돋이 06:13 ▲해질 18:43 ▲달돋이 22:07 ▲달질 12:2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5	17/25	18/25	17/24	16/26	17/27

광주 수완지구에 학교 12개 신설

2012년까지 초·중·고교 3곳

오는 2008년 입주 예정인 광주 수완지구에 초·중·고교 12곳이 신설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2008년 8, 9월 계획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완지구 내에 오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12곳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 9월 광산

구 장덕동·수완동·신가동 등지에 4곳, 2010년 3월 장덕동에 1곳, 2012년 3월 수완동에 1곳이 개교한다. 중학교는 2009년 3월 장덕동·신가동 등 2곳, 2010년 3월 장덕동 1곳 등 3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고등학교도 2009년 3월 장덕동·수완동 등 2곳, 2012년 3월 장덕동 1곳 등 3곳이 개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완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4곳을 먼저 개교할 예정"이라며 "민간아파트 입주시기가 예상과 달리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설학교 개교 시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수완지구 내 신설 학교 12곳을 포함해 광주지역에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 등 38곳을 신설·개교할 방침이다.

/학대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미역에 복부 지방 줄이는 물질있다

체중 5~10% 감소 효과

미역에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대학 수산과학연구원 미야시타 가즈오 박사는 미역에 들어있는 갈색 색소인 푸코산틴(fucoanthin)이 체중을 5~1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미야시타 박사는 푸코산틴을 먹

인 쥐들은 내장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연소 단백질(UCP-1)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푸코산틴을 먹이지 않는 쥐들은 이 단백질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푸코산틴이 지방 연소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백질은 복부 지방인 백색 체지방에서 주로 발견된다.

푸코산틴으로 활성화된 지방연소 단백질은 지방산의 산화와 지

방조직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열에너지 생산을 촉진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야시타 박사는 설명했다. 모든 세포 속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로, 당분과 지방산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야시타 박사는 또 푸코산틴이 간(肝)에서 악성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을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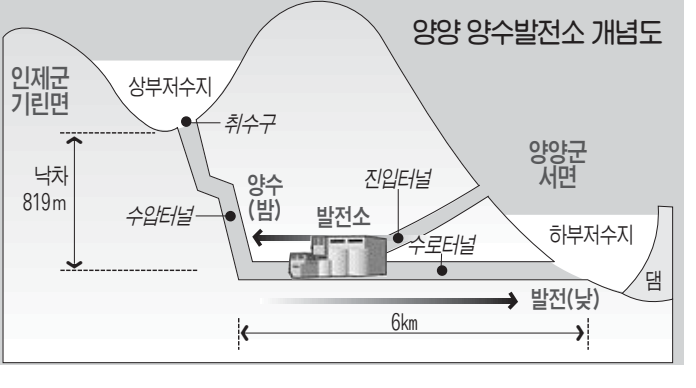
국내 최대 양양 양수발전소 준공



국내 양수발전소 중 가장 규모가 큰 양양 양수발전소가 12일 준공됐다. 양수발전(揚水發電)은 한밤중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전력수요가 많을 때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지난 1996년 착공한 이 발전소는 총공사비 1조1천억원, 연인원 170만 명이 투입됐다. 강원도 전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0만k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상부댐은 산 너머 고지대의 완천하 다른 수계(水系)에 건설했으며, 두 댐 간 낙차는 통양 최대인 819m다.

/한국중부발전 제공



車 연료 절감기 효과 없다

소보원 "엔진 정지 등 되레 고장 유발"

자동차용 연료 절감기의 효과가 없는 데다, 구입 후 해약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연료 절감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7월 20건, 8월 21건, 이번 달 6일까지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6월 8건, 5월 7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의 정비비를 입은 판매자들이 차량 무상점검 없이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접근해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거나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후서비스 해 준다며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 소비자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다. 소보원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성능 확인을 거친 결과 연료 절감기는 절감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춰 서는 등 차량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광주YWCA소비자 상담실에도 화물차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 등에게 보험 공제나 연료비 절감을 내세워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고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상담실의 김희진 간사는 "연료 절감기는 차량 이상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과격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광선종기자 ksj@kwangju.co.kr

"전남지역 신설학교도 납품비리 특별감사를"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광주시교육청 관내 여러 신설학교에서 드러난 기자재·비품 납품비리가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 관내 신설학교에도 납품 비리가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내 신설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의 신설학교 비리가 터지자 신설학교 비품과 시설에 대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학교들의 시설공사와 기자재, 비품 납품과 관련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방수 아직까지 방수트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수구나 지바름으로 100%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특수 방수트

+ 방수트
+ 방수트
+ 방수트

방수트 전문 업체
080-362-7788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중·고 단계 완성 프로젝트**

"합격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중국어 입문부터 150시간까지 5개월 집중학습!"

방문료 무료 3개월 수강 + 150시간 집중학습

리트자이나 中国語学院

020-233-9582